특별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2-3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레나페 네이션(Lenape Nation)의 회원들은 지난 5월 펜실베이니아주 의사당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펜실베이니아연회 미원주민사역위원회(CoNAM)의 위원인 밥 쿰(Bob Coombe) 목사도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집회의 분위기는 희망적이고, 평화롭고, 강력하고, 공정했으며 정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펜실베이니아연회 미원주민사역위원회 위원장인 버나 콜리버가 5월 1일 펜실베이니아 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레나페 네이션의 부족 지위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척 젠틀문 드문드 추장 옆에서 연설하고 있다.

척 젠틀문 드문드(Chuck Gentlemoon Demund) 추장과 부족 어머니(Clan Mother) 셸리 드폴(Shelley DePaul)이 주도했던 이 집회는 펜실베이니아 레나페 부족이 직면한 역사 말살과 '기록물 학살'에 대해 다뤘습니다. 교육 책임자인 아담 워터베어 드폴(Adam Waterbear DePaul)은 주 정부가 부족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청소년들을 비롯한 부족 전체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힘주어 말했습니다. 북미 동부의 삼림지대에 뿌리를 둔 레나페 부족은 역사 말살을 중단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복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집회의 연사로 나섰던 교육자, 환경운동가, 종교 지도자, 보존 운동가들은 문화적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부족 어머니는 수치심 때문에 홀로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친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문화적 표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연사는 자신의 원주민 유산을 늦게 발견하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에 미친 깊은 영향을 밝혔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동부의 주들 가운데 미원주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주입니다. 부족 어머니인 셸리 드폴은 땅과 델라웨어강의 보호자로서 레나페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부족원들의 자긍심과 사람들의 인정을 향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역사적 소외를 극복하고 마땅한 인정을 받겠다는 부족의 결의를 상징하는 구호였습니다.

랜즈데일연합감리교회의 교우이자 동펜실베이니아연회의 미원주민사역위원회의 위원장 버나 콜리버(Verna Colliver)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은 우리가 속한 연회 미원주민선교위원회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이 예물은 미원주민들이 교회와 사회를 위해 했던 공헌을 연합감리교인들이 기억하도록 돕습니다.

후원 방법:
체크 메모난에 "**미원주민선교주일**"이라고 적어 소속 교회에 헌금하세요. UMC.org/SSGive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하시거나 월 정기 후원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